

‘아름다운 캠퍼스’ 틀을 벗자

UI 작업으로

독창적 이미지 창출

경제의 원인으로 본다면 이제까지 대학은 공급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2003년이면 대학의 정원보다 수험생의 수가 늘어들므로 인해 각 대학은 수험생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기업의 홍보사업과 같이 대학도 각자의 고유한 캐릭터와 이미지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지경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이 국내의 각 대학들로 하여금 이미지 변신에 골몰케 하고 있다. 일례로 성균관대학의 경우 설립 6백주년이라는 ‘전통’과 ‘엄숙함’의 이미지를 벗고 귀여운 용의 캐릭터가 돋보이는 과감한 변신을 한 바 있다. 물론 과정에서의 내부적인 갈등도 존재했지만 현대적인 이미지로의 변신은 대체로 자기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학교의 경우 유난히 캠퍼스 전경이 아름다운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벚꽃이 피는 4월 초순이면 각 일간지에 실리지 않게 우리학교의 캠퍼스가 게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만큼 타 대학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캠퍼스의 아름다움만큼 학문과 연구의 영역에서도 부러움을 사야 할 때가 된 듯하다. 학내 구성원들은 우리학교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해 황승연(사회) 교수가 우리학교 지원학생 및 학부모 3천7백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학교의 이미지에 대해 ‘아름다운 캠퍼스’라고 답한 것을 볼 때 대외적인 이미지가 지극히 시각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학교 홍보체제나 비디오프로젝트나 나타나는 본관 대석조전과 중앙도서관 등을 볼 때 우리학교가 ‘아름다운 캠퍼스’라는 예명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바라는 대학상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지닌 대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바람직한 대학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을 꼽은 것으로 볼 때 발걸음은 더욱 더 바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학교는 사실 60년대부터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 그 어느 대학보다 앞장서 왔고, 그래서 현재 대학간 국제회의 역시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의 대학과 맺은 자매결연 대학의 수도 1백4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화 방안이 우리학교를 홍보하는 데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TV광고, 라디오 광고, 음악회 유치 등 각종 홍보활동을 매년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변함없이 ‘아름다운 캠퍼스’ 하나뿐임을 볼 때 이제까지의 노력들이 일회적인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학교도 이러한 홍보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진취적이고 특성화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미지 통합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학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대학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작업은 분명 부단한 노력과 장기적 안목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계획중인 UI(University Identity) 작업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UI란 일반기업체에서 행하고 있는 CI(Corporate Identity) 작업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외국대학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러한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UI작업은 구체적으로 우리학교를 홍보하게 될 홍보물이나 상징물을 통일시킴으로써 학교의 이미지를 확고히 굳히는 것이다.

또한 “UI작업이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이미지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최병식(미교) 교수의 전망처럼 이러한 이미지 통합작업이 우리학교의 이미지를 굳히는 것 뿐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작된 홍보물이나 상징물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의미에 그쳐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그 홍보물이나 상징물이 홍보하고 상징해야 할 주체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UI작업의 성과물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우리학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분명하다. 홍보물이며 상징물이 될 각각의 대상들에 우리의 이미지를 심되 학생들이 바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우리학교의 의지를 심어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볼 때 아름다운 캠퍼스는 물론 기억 속에 새겨질 특화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학교가 국제화에 앞장서고 세계화에 발맞추는 대학이라고 믿는 학내 구성원간의 확산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우리학교가 진정한 국제화와 세계화에 앞장서는 대학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각종 홍보매체에 담아 전파시켜야 한다. 우리학교가 반세기에 걸쳐 이룩한 3개의 캠퍼스와 다양한 부속기관들이 단지 ‘아름다운 캠퍼스’라는 예명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다. <강남이 기자>

이번호 24면 발행



지면안내

3면-학술

세종대왕 탄생 6백주년 기념

7면-인물 1

비정질 실리콘의 대가 장진 교수

8면-인물 2

도서관 호랑이 이윤택씨

2면-학원장, 동문회장
축사

4면-경희 공간배치 점검

5면-조정원 총장 특별
인터뷰6면-사이버공간에서의
대학신문

9면-정보

10면, 11면-보도

12면-시문에 현상공모전
발표

한글은 그 과학적 조직과 실용의 간결을 가진 점에 있어서 세계 전 인류의 문화 업적 중 최고의 광휘를 지니고, 이는 우리에게 최대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4천년 역사의 민족 의식도 이 한글의 창제로 그 확립을 보았으며, 두궁한 미래의 민족 문화 발전의 기초 또한 한글의 반포로 인해 굳건히 다져진 것이다.

세종대왕이 탄생한지 6백주년이 되는 5월 15일을 맞이하여 민족 공동체를 결속하는 훈민정음의 현재적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새겨보고 우리민족 최대 은인이라 할 수 있는 세종의 은덕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학내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수여받은 대내외적 명사. 국내 비정질 실리콘 분야 최고 권위자 장진 교수.

그의 평범한 생활 이면에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력의 화려함이 있다. 그 경력의 화려함을 바탕으로 한 그의 전진은 지금도 진행중.

그가 현재 몰두하고 있는 연구는 TFT분야로 장교수는 TFT-LC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매체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TFT-LCD연구센터 건립의 꿈을 키운다.



학생증을 분실했거나 소지하지 않은 이는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에 드나드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출입구를 통제하는 도서관 수위아저씨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웬만한건 덤덤하게 지나치는 뻔뻔함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한번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아 길게 줄 서있는 도서관 출입구에서 아저씨에게 우리학교 학생임을 조사당할 때면 으레 당황하기 마련이다.

학과 교수님 성함을 확인하는 등의 철저함으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무서운 아저씨’, ‘중도의 호랑이’로 통하게 된 서울 캠퍼스 중앙도서관 수위아저씨 이윤택씨를 찾아가 보았다.